

해양 다큐멘터리

— 바다를 기록하고, 보여주고, 보존하는 영상

Made with GAMMA

해양 다큐멘터리란?

- 바다와 해양 생물, 해양 환경, 인간과 바다의 관계를 영상으로 기록
-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바닷속 세계를 카메라로 보여주는 장르
- 자연 기록 + 환경 문제 전달 + 교육과 인식 개선



Made with GAMMA

제작을 위해 필요한 것

- 수중 카메라 / 방수 하우징
- 수중 조명: 물속에서 감소하는 빛과 색 보정
- 다이빙 및 수중 촬영 기술
- 안전 관리와 촬영 인력
- 해양 생태에 대한 사전 조사
- 날씨·조류·수심을 고려한 촬영 계획



Made with GAMMA

어떻게 만들어지는가?

01

기획 단계

1. 주제 선정
2. 자료 조사와 촬영 대상 파악

02

현장 준비

3. 장소·시기·장비·인력 계획
4. 수중 및 수면 촬영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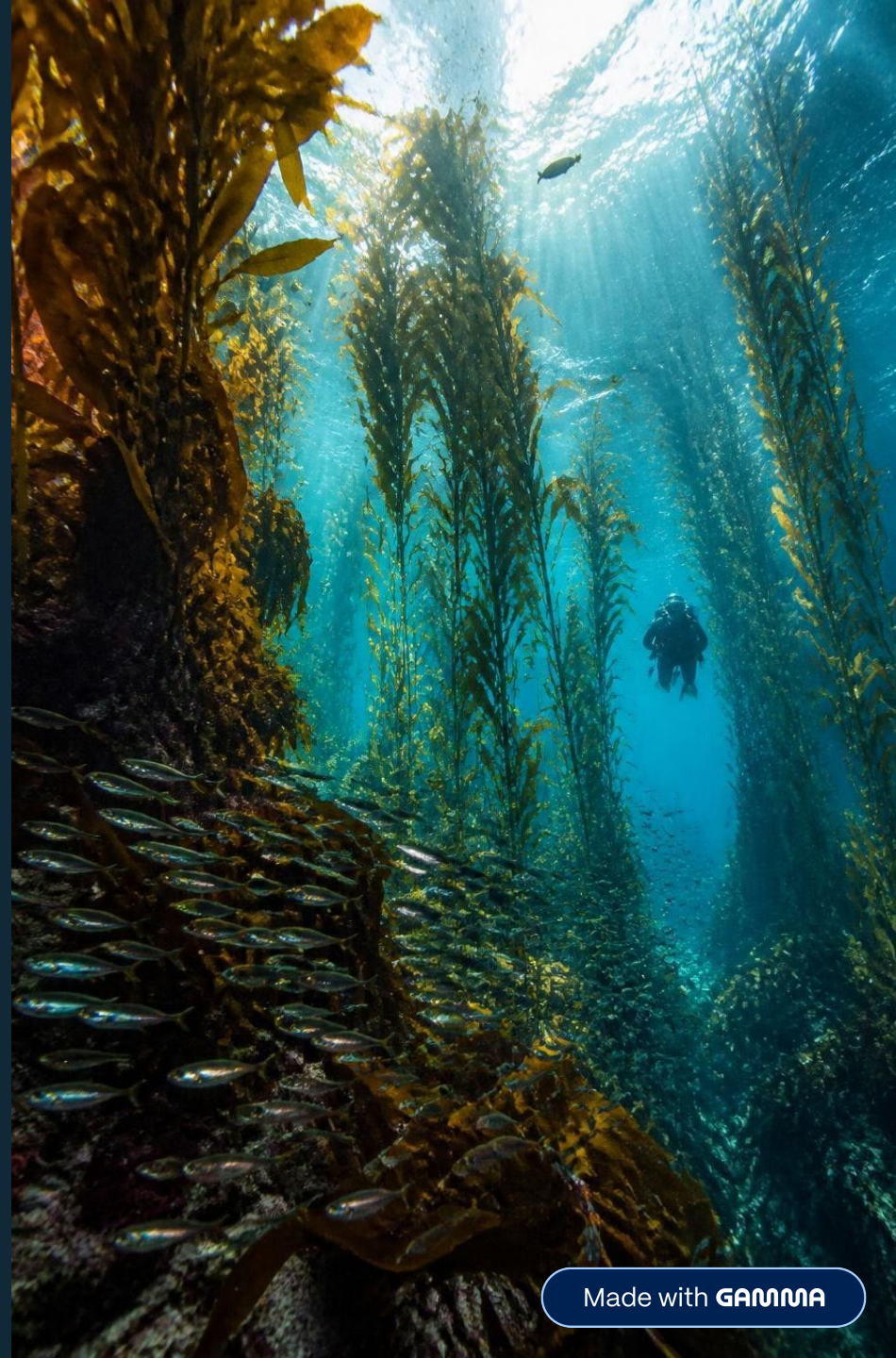
후반 작업

5. 편집·내레이션·인터뷰·음향 구성
6. 하나의 이야기와 메시지로 완성

Made with GAMMA

촬영에서 중요한 것

- '많이 찍기'보다 '이야기 만들기'
- 생물의 행동과 서식 환경을 함께 기록
- 수중의 빛, 움직임, 소리를 적극 활용
- 영상의 구도와 카메라 움직임으로 관객의 시선을 유도
- 아름다운 장면과 현실적인 환경 문제를 균형 있게 보여주기



Made with GAMMA

해양 다큐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


변화하는 해양 생태계의 기록과 보존



해양오염·기후변화 문제의 시각적 전달



학교·교육기관의 생태 교육 콘텐츠



지역 해양환경 및 관광 콘텐츠



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중 인식 개선



장기적으로 같은 장소를 재촬영해 환경 변화 비교

Made with GAMM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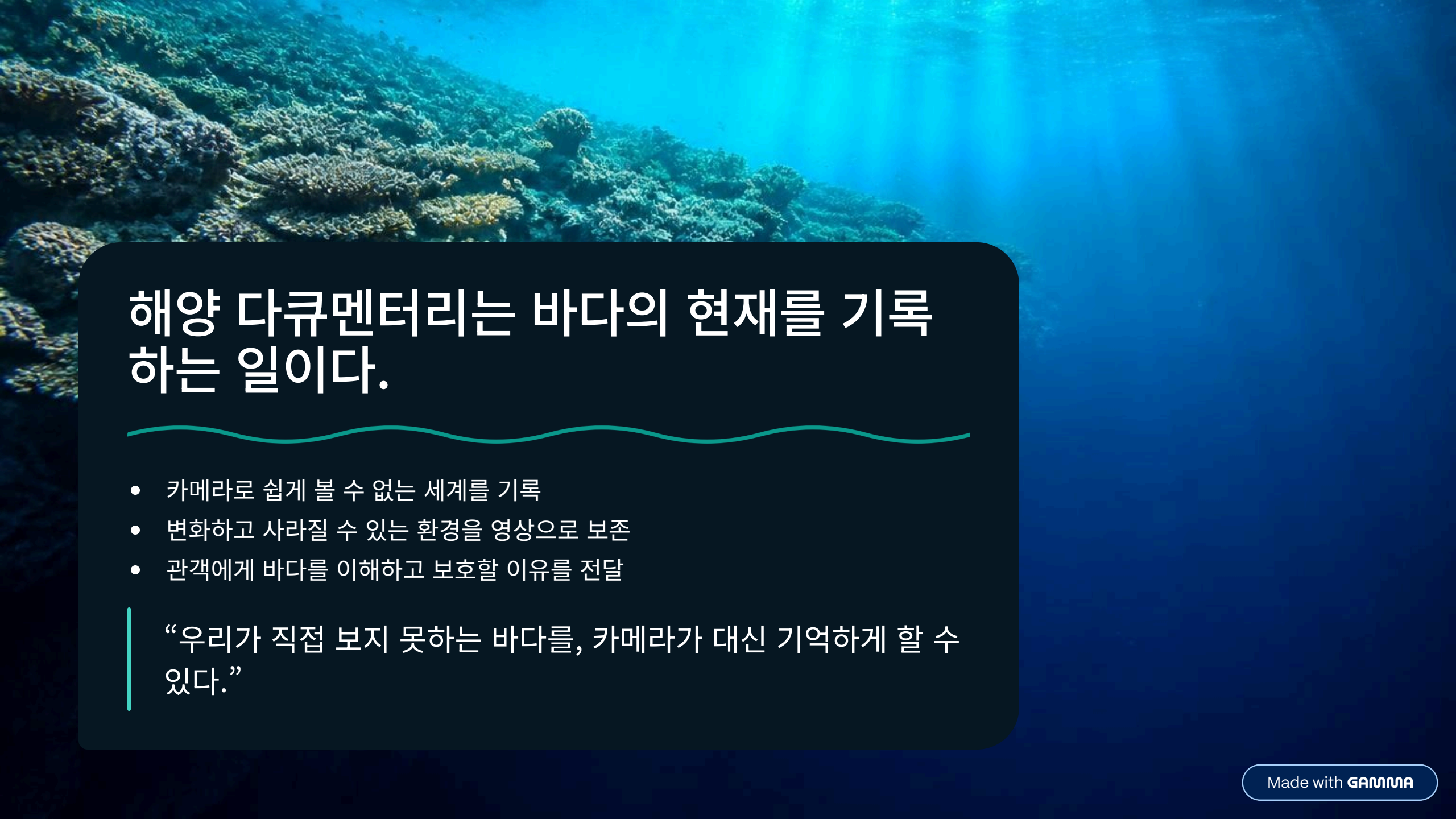
앞으로의 전망

- 소형·고화질 수중 장비의 발전
- 드론·액션캠을 활용한 수면과 수중의 연결
- VR·360도 영상으로 몰입형 해양 경험 가능
-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 제작자도 콘텐츠 확산 가능
-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

EVOLVING MEDIA

→ 해양 다큐는 자연을 보여주는 영상을 넘어 '기록 + 교육 + 환경 메시지'의 매체로 발전

Made with GAMMA



해양 다큐멘터리는 바다의 현재를 기록하는 일이다.

- 카메라로 쉽게 볼 수 없는 세계를 기록
-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영상으로 보존
- 관객에게 바다를 이해하고 보호할 이유를 전달

> “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바다를, 카메라가 대신 기억하게 할 수 있다.”

Made with GAMMA